

2) 순천의 천주교 전래

(1) 순천공소 개설

① 송성문 베네딕토

1916년 베네딕토라는 세례명을 가진 송성문 형제가 경남 진주에서 이곳으로 이주해오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지기 시작했다. 전라지역의 천주교 전래와 순천지역의 천주교 전래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비교, 관찰해보면 순천에 천주교의 전래는 약간 늦게 전파되었다. 전라지역과 순천지역은 서로 다른 통로를 통해서 신앙이 전파되어 정착되었다. 즉 순천지역의 천주교 전래는 목포나 광주지역을 통해서 전파된 것이 아니고, 경남지역의 천주교 전파과정을 통해서 들어온 것이 특징이다.

② 김명제 베드로 신부

교회도 없는 불모지 상태에서 진주 문산본당의 김명제 베드로 신부는 순천의 송성문 형제집에서 첫 미사를 봉헌하였다. 당시 김베드로 신부는 문산본당 제임 중(1908~1916년) 넓은 전교 구역을 개척하는 데 주력하여 하동·사천·고성·순천 등지를 순회하면서 사목생활을 하였다.

③ 순천공소 발족

1919년 옥천동 15번지 송베네딕토 형제집에서 문산본당 제3대 신부로 부임한 김양홍 신부의 집전으로 공소 첫 미사를 봉헌함을 계기로 순천공소가 발족되었다. 초대 공소회장에는 송성문 베네딕토가 임명되었다.

④ 황일천 베드로와 공소 이전

1925년에 공소를 저전동 113-2번지로 이전하였으며, 황일천 베드로가 그때 공소회장에 선임되어 전교에 힘썼다. 이어서 1926년에 진주 옥봉본당이 신설되어 주교의 지시에 따라 옥봉본당에 부임한 정수길 요셉 신부와 문산본당의 김양홍 스터왕 신부가 6개월씩 교대로 순천공소에 와서 전교를 하였고, 문산 교우 김인수 베드로를 전도사로 발령하여 6년간 전교하도록 파견하였다.

⑤ 공소연도회 창설

1929년 2월 15일에 순천공소에서는 뜻있는 교우들의 발기로 첫 평신도 심신단체인 호상회(연도회)¹⁾ 창립총회를 열고 회칙 통과와 회원 각자가 책임이행을 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임원을 설정하였다. 회장 이명수, 재무 송성문, 간사 이대매·김경두·양치준 등이다. 이 호상회는 교우들의 단합과 전교활동에 크게 기여하였다.

1) 연도란 세상을 떠난 교우의 영혼을 위해서 바치는 기도를 말하며, 이 기도를 공동으로 바치면서 장례예절을 치르는 교회의 한 모임체를 연도회라 한다. 초창기에는 호상회(護喪會)라 했다.

⑥ 공소의 확대

1931년 12월에 상사공소와 서면공소가 설립되었다. 상사공소는 곡성에서 온 김아와 상사면 서정마을 최병욱 방지거가 그의 양잠실에서 시작하였으며, 서면공소는 서면 선평리 허석구 집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같은 해 여자 전교회장에 이도나다가 임명되어 여성 전교의 활성화에 첫문을 열었다.